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2026_spring
통권 1091호

두 2 기 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도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보성인들이여,
-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contents

2026_spring
통권 1091호

0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도

03 목차

04 말씀읽기 · 말씀 다지기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4 티노생각

36 탕이와 아치

38 오! 가작통

40 성지순례 ZIP

42 WYD Q&A

44 있어보이는 우리말

45 청소년 성인

46 성지 부루마블

48 보아라 찾아라 환호하라!

50 우리들 이야기

52 레오 교황의 말씀 순례



말씀 읽기

3월 1일 사순 제2주일 마태 17.1-9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말씀 다지기

사순 제2주일 (마태 17.1-9)

1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함께 산을 올랐던 제자 셋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베드로, 야고보, 요한
- ② 바르톨로메오, 야고보, 마태오
- ③ 마리아, 시몬, 요한
- ④ 안토니오, 베드로, 요한

2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적어보세요.

3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지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3월 8일 사순 제3주일 요한 4. 5-15, 19-26, 39-42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십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말씀 다지기

사순 제3주일 (요한 4.5-15, 19ㄴ-26, 39ㄴ, 40-42)

- 1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마실 물을 청했을 때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나요?
 ① 아버지 ② 선생님 ③ 스승님 ④ 주님

-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적어보세요.

- 3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어떤 말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받은 기쁨을 어떻게 전하고 싶는지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3월 15일 사순 제4주일 요한 9.1.6-9.13-17.34-38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말씀 다지기

사순 제4주일 (요한 9.1.6-9.13-17.34-38)

1 복음을 보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① 가난한 이 ② 눈먼 이 ③ 파견된 이 ④ 앞는 이

2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이의 눈을 어떠한 과정으로 고쳐주셨는지, 복음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3 복음에서 ‘눈이 열린다.’ 는 것은 단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눈이 열렸나요? 나는 어떠한 계기로 믿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3월 22일 사순 제5주일 요한 11, 3-7, 17, 20-27, 33-45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17 예수님께서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더라도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33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 다지기

사순 제5주일 (요한 11.3-7,17.20-27.33-45)

- 1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라자로의 누이(자매)들은 누구인가요?
 - ① 사라, 안나
 - ② 라헬, 요안나
 - ③ 수산나, 마르타
 - ④ 마르타, 마리아

- 2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신 말씀 중, “나는 ____이요 ____이다.” 에 들어갈 단어를 복음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 3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해주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나 삶에서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주시기를 바라는지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마태 27:11-54

그때에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12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18 ○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20 ○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군중이 대답하였다. ◎ “바라빠요.” 22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 ○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25 ○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26 ○ 그래서 빌라도는 바리새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30 ○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31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33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 라는 곳에 이르렀다. 34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36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37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38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39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40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42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43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44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45 낮 열두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47 그곳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48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50 ○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51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말씀 다지기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마태 27.11-54)

- 1 예수님을 은 삼십 닢에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긴 복음 참고)
 - ① 베드로
 - ② 야고보
 - ③ 마태오
 - ④ 유다 이스카리옷

- 2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 대신 어떤 인물을 놓아주었는지, 복음에서 찾아 적어보아요.

- 3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진 장면이나 말씀이 있나요? 그 장면이 왜 마음에 남았는지도 함께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씀 다지기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1 다음 중 복음에서 나온 단어들의 순서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 ㉡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
- ㉢ 제자들
- ㉣ 천사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어보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3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지 적어보세요. 만약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4월 12일 부활 제2주일 요한 20, 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로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 2주일 (요한 20. 19-31)

1 다음 중 복음에서 나온 단어들의 순서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두 손과 옆구리
- ㉡ 성령
- ㉢ 용서
- ㉣ 평화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 복음을 읽고, 다음 ○○○ ○○○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어보아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 ○○○ ○○!” 하고 말씀하셨다.

3 예수님의 평화를 언제 느껴보았나요?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적어 보세요. 없다면, 어떤 순간에 평화를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4월 19일 부활 제3주일 루카 24. 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13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15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뚫은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18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23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 26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29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30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34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3주일 (루카 24.13-35)

1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 ① 나자렛, 나눔, 귀
- ② 나자렛, 토론, 눈
- ③ 엠마오, 토론, 눈
- ④ 엠마오, 나눔, 귀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어보아요. (3개)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과 ○○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3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런 때가 있다면 언제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4월 26일 부활 제4주일 요한 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님께서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4주일 (요한 10, 1-10)

1 다음 중 복음에서 나온 단어들의 순서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양들의 목자
- ㉡ 낫선 사람
- ㉢ 양들의 문
- ㉣ 문지기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 복음을 읽고,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적어보아요. (3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3 언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느끼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말씀 읽기

5월 3일 부활 제5주일 요한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었던 것이다.” **8**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말씀 다지기

부활 제 5주일 (요한 14.1-12)

1 오늘 복음에서 '알다' 라는 동사는 몇 번 나올까요?

- ① 4번
- ② 5번
- ③ 6번
- ④ 7번

2 복음을 읽고, 가장 와닿은 구절을 한 번 적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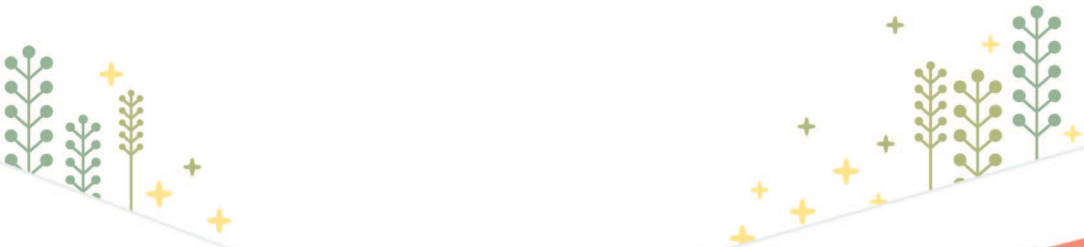
3 우리는 언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가요? 하느님께서 우리와(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낀 순간을 한 번 나누어 보아요.



말씀 읽기

5월 10일 부활 제6주일 요한 14, 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말씀 읽기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 마태 28.16-20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야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 다지기

주님 승천 대축일 (마태 28.16-20)

1 열한 제자들은 산에서 예수님을 뵈고 어떻게 하였는지 맞는 단어를 찾아보아요.

- ① 찬미, 인사
- ② 경배, 의심
- ③ 식사, 배반
- ④ 줄음, 놀람

2 복음을 읽고, 18절-20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보아요.

3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릴 수 있을지 나누어 보아요.



말씀 읽기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 20, 19-23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 다지기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 20.19-23)

- 1 다음 중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 ① 평화가 너희와 함께!
 - ②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③ 성령을 받아라!
 - ④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2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잠가 놓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으로 기뻐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과 행동이었는지 적어보세요.
-
-
- 3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칠은 중에서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은총은 어떤 것인지 적어보고, 나누어 보세요.
-
-
-



말씀 읽기

5월 31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요한 3.16-18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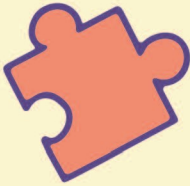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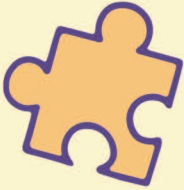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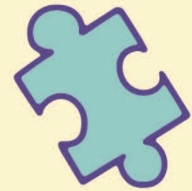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요한 3.16-18)

- 1 오늘 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① 세상 ② 심판 ③ 생명 ④ 이름

- 2 오늘 복음에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적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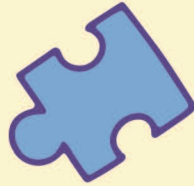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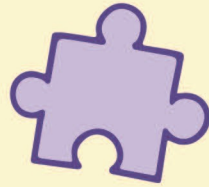
- 3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예요.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을 부르며 삼위일체 하느님께 정성껏 성호경을 그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미사 중 제 1독서 전에 바치는 '본기도' 문을 한 번 적어볼까요?

앙큼한(*^_^*)
TINO 생각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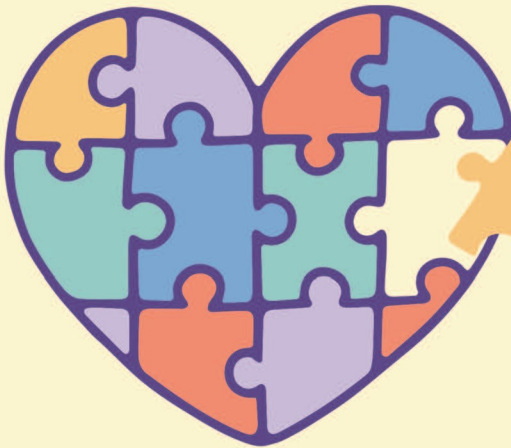
서로 맞추어
나아 갔으면 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앙큼] 티노



①



②



③



④



⑤



⑥



태지와 아치

글/그림 이윤식 마르코



인간관계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늘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기대가 힘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오!

가_{톨릭}작_은전_통

글 : 김진심

恭敬在中

공경재중

: 공경은 마음에 있고,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다.

23년도 여름에 나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잠깐 있었어. 난생처음에 유럽에 가봤는데, 그때 WY-D(세계청년대회)에 참석 중이었어. 수십만 명의 청년이 한 도시에 모여 있는 그림... 혹시 상상할 수 있어? 어디를 가도 외국인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성호경을 긋는 거... 혹시 상상할 수 있겠어?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되게 인상적이었어. 걷다가 아무 성당에 들어가도, 기도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있었기 때문에 여러 청년이 간절히 기도하는 진풍경이 보였던 거겠지?

장례(長跪)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웠어. 장례는 전례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리키는 한자어야. 실제로 대회 중에 걷다가 어떤 성당에 들어갔거든? 거기에는 '성시간'을 하고 있었어. 제대 위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광이 빛나고 있고, 제대 앞 양옆 가에는 예수님 그림이 이젤에 전시돼 있었어.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광에서 빛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치고 있었어. 난 그때 다리를 다쳐서 그냥 앉았었는데, 스킨 헤드에 엄격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몸짓을 하기도 했어. 어때... 부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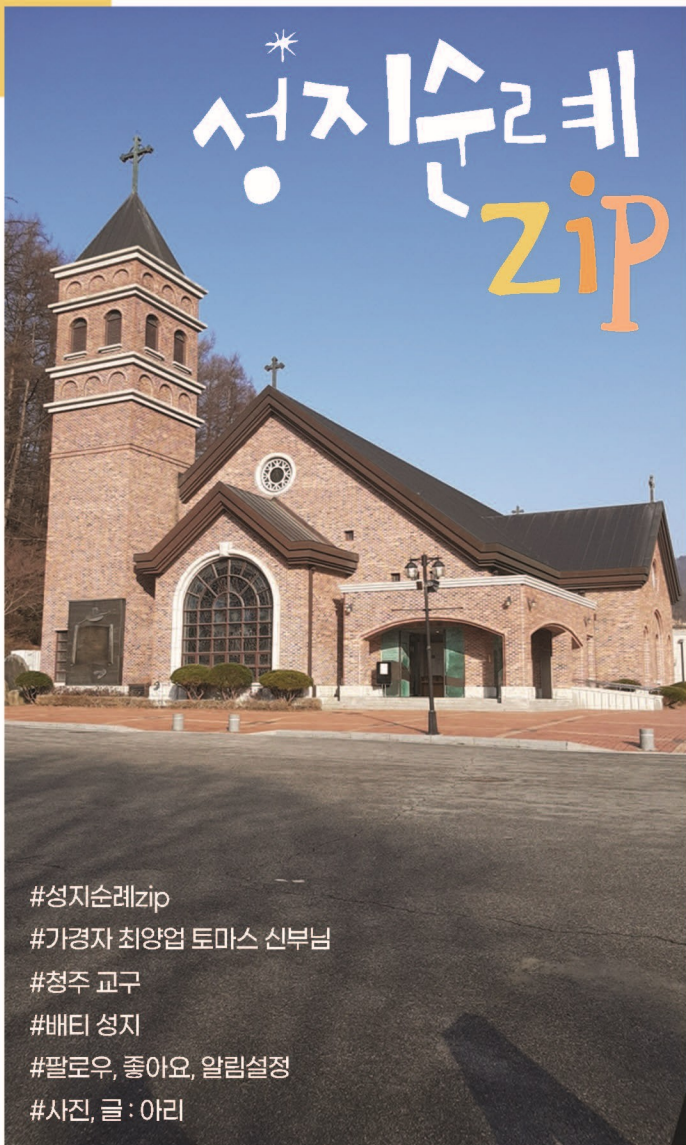


익숙해 보이더라. 장례를 하고 기도하는 거. 유럽의 청년들에게는. 특히 맨바닥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더 그렇게 생각했어. 하긴,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무릎이 가벼워도 상관 없긴 해. ㅇㅈ?

미사 중에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기도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 최근에 내 주변에서는 미사나 전례 중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드물고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익숙한 거 같아. 그래서, 유럽 청년들의 가벼운(?) 무릎이 더 인상적으로 느꼈는지도 몰라. 둘 다 좋은 자세야. 무릎을 꿇든, 서 있든, 다 나름의 의미와 이유가 있지. 그걸 서로 비교해서 우위를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냐. 다 나름대로 고유하고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치?

다만, 미사나 전례 중 나의 자세가 하느님 앞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건 기억해야 할 포인트인 거 같아. 어떤 자세를 취하든 하느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니까. 성당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짝다리를 짚을 수도 있고, 손을 펼쳐 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태도 하나하나가 하느님께 메시지를 던지는 신호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거 같아. 그걸 알고 짝다리를 짚으시길...

성지순례 zip



#성지순례zip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청주 교구

#배티 성지

#팔로우, 좋아요, 알림설정

#사진, 글 : 아리



-땀의 순교자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첫 번째 본당이며 사목 중심지
-박해시대 천주교 신자들의 비밀 교우촌
-여러 순교자들의 안식처



#배티성지

#위치: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663-13

#다음엔 어디?



Q1 | 세계청년대회(WYD)가 무엇이며, 왜 대한민국에서 열리나요?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는 국제적 차원에서 많은 젊은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길 열망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주도하에 탄생하게 됐어요. 매년 개별 교회에서 기념하는 ‘세계 젊은이의 날’을 3~4년 주기로 국제적 차원의 대회로 개최하는 것이 WYD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리스본 WYD 파견 미사에서 “유럽의 서쪽 끝인 리스본에서 아시아의 동쪽 끝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라고 발표하시며,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27 서울 WYD는 2027년 7월 29일(목) ~ 8월 8일(주일) 일정으로 열려요.

- ✕ 상징물 순례 (안동): 2027년 3월 3일(수) ~ 31일(수)
- ✕ 교구대회 (안동): 2027년 7월 29일(목) ~ 8월 2일(월)
- ✕ 본대회 (서울): 2027년 8월 2일(월) ~ 8월 8일(주일)

Q2 | 세계청년대회(WYD) 로고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나요?



‘만남과 일치’의 축제를 상징해요. 중앙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역동적인 청년의 모습을 담았어요.

붉은색은 순교, 파란색은 청년의 열정, 노란 원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며, 검은색은 청년들이 밝혀 나갈 미래를 뜻해요.

전통 서예로 쓴 ‘서울’ 안에는 W, Y, D가 함께 드러나 동서양의 조화 속에서 모든 젊은이가 서울에 모이는 축제를 표현했어요.

Q3 | 세계청년대회(WYD) 주제성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영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율한 16.33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으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확신을 전해줘요.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불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WYD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순례자', '용기의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Q4 | 세계청년대회(WYD) 상징물 순례가 무엇인가요?

????



세계청년대회에는 두 가지 상징물이 함께 해요. 하나는 'WYD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백성의 구원자 '성모성화'예요.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젊은이들에게 'WYD 십자가' 순례를 맡기셨어요. 이어서 2003년 부터 십자가 순례 여정에 로마의 백성의 구원자 '성모성화'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WYD 폐막 미사에서 교황님이 차기 개최지를 발표하시면 그 교구는 WYD를 준비하는 3년 여정 동안 상징물들을 공식적으로 인수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각 교구를 순례하며 신앙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있어보이는

우리말

글: 어홍

두레판 친구들 안녕?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JMJ)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려요.
그래서 올 한해 '있어 보이는 우리말'은 역대 WYD 개최지 몇 곳을 소개하며, 각
대회의 주제 성구를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보려 해요.

제1차 세계청년대회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강론에서 "오늘 여러분은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다시 모여
온 교회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청년의 날 전통을 시작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인간 역사에 오신 하느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 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2~3년 주기로 국제대회가 열릴 것을 공표하셨어요.

로마 대회의 주제 성구는 "너희는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거룩하게 간직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라."예요

이 표현을 함께 따라 써볼까요?

“Ma adorare il Signore, Cristo, nei vostri cuori,
pronti sempre a rispondere a chiunque vi domandi
ragione della speranza che è in voi.”

1 Pietro 3,15

마 아도라테 일 시뇨레, 크리스토, 네이 보스트리 쿠오리,
프론티 셴프레 아 리스폰데레 아 키운퀘 비 도만디
라조네 델라 스페란차 케 에 인 보이

“Ma adorare il Signore, Cristo, nei vostri cuori,
pronti sempre a rispondere a chiunque vi domandi
ragione della speranza che è in voi.”

“너희는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에 거룩하게 간직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라.” (1베드 3,15)



St. Tarsicius

청소년 성인

글: 호야

여러분은 '성인(Saint)'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어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성인들 가운데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하느님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주 어린 나이에 중요한 선택을 했던 타르치시오 성인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타르치시오는 오래전 로마에 살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아이도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했던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미사를 드려야만 했었는데, 신자들에게 성체를 전해 주러 가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했답니다. 모두가 망설이던 순간,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 타르치시오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용감하게 성체를 품에 안고 길을 나섰어요. 그렇게 길을 가던 중,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수상히 여겼고, 밀치고 때리며 품속의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을 지키려 했지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사람들이 그의 품을 열었을 때 성체는 그대로 지켜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르치시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봄을 보내며, 타르치시오 성인과 함께 내 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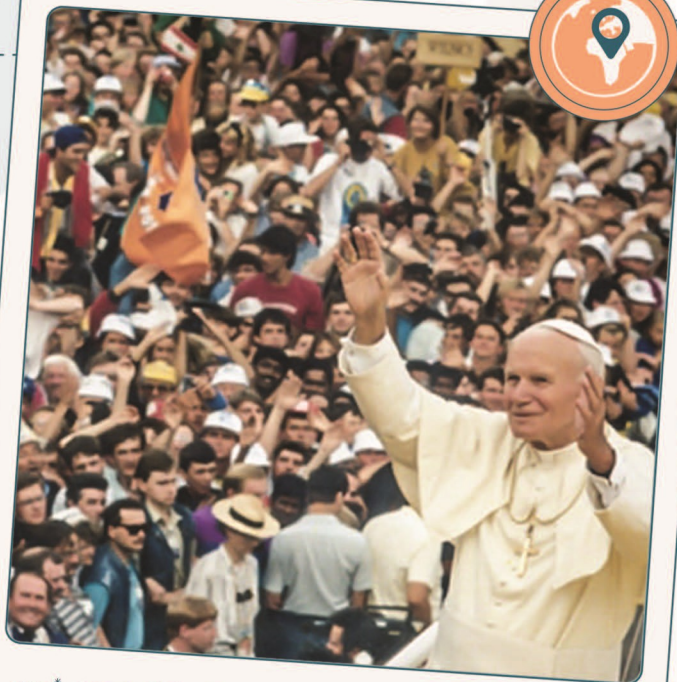


글 : 안실장

부쿠마볼 설치



× × × × ×



1986년의 소박한 첫걸음부터

2000년 대희년의 뜨거운 함성까지

출처 : 2027 서울 WYD 공식 홈페이지



제1회, 15회 WYD : 로마 Roma

- 1986 ● 이탈리아 로마
- 1987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1991 ● 폴란드 체스토호바
- 1993 ● 미국 덴버
- 1995 ● 필리핀 마닐라
- 1997 ● 프랑스 파리
- 2000 ● 이탈리아 로마
- 2005 ● 독일 쾰른
- 2008 ● 호주 시드니
- 2011 ● 스페인 마드리드
- 2013 ● 브라질 리우
- 2016 ● 폴란드 크라쿠프
- 2019 ● 파나마 파나마시티
- 2023 ● 포르투갈 리스본
- 2027 ● 한국 서울

시작의 설렘 : 처음 그날의 이야기 1986년

여러분, 세계 청년 대회(WYD)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제1회 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초대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어요.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한 공연이 있지도 않았대요. 대신 로마 시내 성당들이 밤새 문을 열어두었고, 청년들은 교황님과 대화하고, 밤새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 청년들이 느낀 감동이 정말 컸다고 해요. "아,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체감한 거죠. 그 진심 어린 첫걸음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거예요.

대회년의 감동 : 200만 명의 파수꾼들 2000년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바로!!!!
2000년 '대회년' 대회예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로마 외곽 광장에 모였거든요. 그때 정말 대단했던 게, 날씨는 엄청나게 덥고 물은 부족해서 다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기보다 서로 물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때 교황님이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천년을 깨울 아침의 파수꾼입니다!" 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벅찼는지 상상이 가나요? 그 시절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와 기도였다고 해요."

로마 대회만의 특별한 울림

두번이나 열렸던 로마 대회는 조금 더 특별해요. 바로 성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서 현직 교황님과 전 세계 청년들이 마주 보거든요. 초대 교황님부터 지금의 교황님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의 흐름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죠. 단순한 축제를 넘어, 내가 교회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WYD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 선물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한 채, 다음 신앙의 여정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볼까요?"

다른 그림 찾기



1월 11일(주일) 주교좌 목성동 성당에서 부제 서품식이 있었어요.
김정수 그레고리오 부제님과 이민우 테오필로 부제님이 주님의 복음
선포자로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두레판 친구들도 기도 해주세
요~^^

다른곳 5군데를 찾아보세요.



1월 24일(토) - 25일(주일)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가 있었는데요,
 봉화 분천산타마을에서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훈양성당 신자들과
 주일미사도 함께 봉헌하였어요. 미사 중에 특송도 부르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정답을 찾아 사진을 찍어
 인별그램에 응모해주세요~!

달 / 빗자루 / 장작 / ㅋ / 꽃다발



용상동 성당



COME!!

우리성당에 올래?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자리

용상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인원은 9명이예요.
 인원수는 적지만 출석률은 100%에 가깝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미사 전례에 참여하고 있어요.
 용상동 성당에는 '만남의 자리'와 '은총의 자리'가 있어요.
 '만남의 자리'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간식을 먹고,
 어른들이 회의하시거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지하에 있는 '은총의 자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리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주일학교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내는
 고마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G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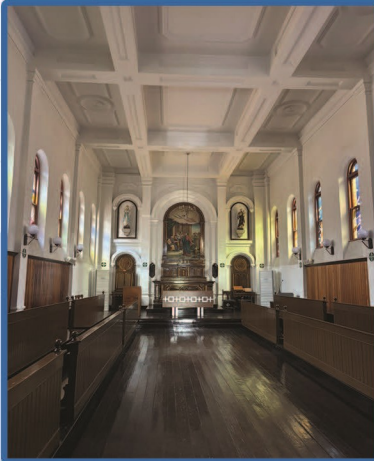
갈래!

성지위에 세워진 학교

신학생



대구 대신학교는 사제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영적 양성의 터전입니다.
저희 신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성지 위에 세워진 학교라는 점입니다.
신앙 선조들의 믿음과 희생이 스며 있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은,
신학생들에게 깊은 영적 성장과 소명의식을 키워 줍니다.



남성동 성당 안



우리성당에 올래?

COME!!



"동양의 미" 한지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 남성동 성당은 성당 안 유리창이 특이해요!

한지를 예쁘게 오려서 붙였어요!

서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지만,
특유의 동양의 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지의 아름다운 색조가 성당 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성당 안을 따뜻하게 채워준답니다.





GOGO!

갈래!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낼 수 없는 행복한 소리!

송현동성당



우리 성당에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특전미사가 있어요.
 드럼,베이스 소리에 마음이 설레고, 형들의 기타 연주에 눈이 반짝이는 곳!
 '아무밴드'의 공연 같은 찬양을 보고 자란 동생들이 어느새 새 멤버가 되는 성당, 함께 미사 드리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 모두 송현동으로 놀러 오세요!



레오 14세 교황의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용기있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들이** 되고자 준비합니다. 이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로 우리를 이끌어 줄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를 유념하며 저는 증언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려 합니다.

곧,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 그리고 사회에서 **평화의 건설자로서 우리 각자가 기울이는 노력**입니다.”

2025. 11. 23.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에서

기도지향

3월 군비 감축과 평화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비 감축,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고, 세계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4월 위기를 겪는 사제들

성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제들이 필요한 동반을 얻고, 공동체가 이해와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월 모든 사람을 위한 식량

대규모 생산자부터 소규모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식량 낭비를 줄여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보장하고자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Republic of Korea



Roma

공지사항

찬미 예수님! 두레판 친구들~

2026년 올해 새롭게 개편된 코너를 발견하였나요? 2026년 두레판에서는 내년에 있을 WYD 세계청년대회(2027 WYD/2027 JMJ¹⁾ /2027 GMG)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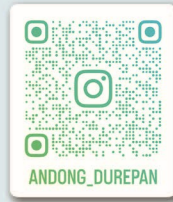
◆상반기 중등등부 회장단 모임이 3월 21~22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28)라는 말씀과 함께 ‘작은 WYD’를 선행으로 준비하며 환대와 만남과 봉사의 길을 걷는 시간이 될 거예요.

◆ 여름 호에 실릴 본당 사진을 공모합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들을 4월 13일까지 사목국 메일로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안동교구 두레판"

http://www.instagram.com/andong_durepan

#사목국 메일 - sa3119@nate.com



¹⁾세계청년대회를 영어권에서는 WYD(World Youth Day)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어권에서는 JMJ(Journées Mondiales de la Jeunesse/Jornadas Mundial(es) de la Juventud), 이탈리아어로는 GMG(Giornata Mondiale della Gioventù)라고 말한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36678 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막길 77)

